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위원장 김용일입니다.

코로나라는 펜데믹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노동조합은 2021년 5월부터 단체협상을 시작하였고, 분기마다 진행된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회사와 협상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수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기에 연 내 조합원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안겨 드리지 못해 정말 송구한 마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2022년 1월부터는 완료하지 못한 임금 및 제도 개편을 통해 조합원들의 처우 개선 및 근무 환경의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롭게 준비하고 도약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저물기 며칠 전 노동조합은 회사로부터 희망퇴직이라는 제의를 받았고 구체적인 안(案)을 제안 받았습니다.

저는 노조 위원장으로서 직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제도(신인사제도, 직군 전환 제도 등)와 타사대비 낮은 임금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희망퇴직이라는 제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에 있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퇴직을 하고 나간 빈 자리를 남은 직원들이 더 채워야만 하는 고된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에, 희망퇴직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남은 직원들의 처우에 관련된 것이 회사와 어느정도 합의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조합원들에게 늦은 시간 메시지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노조위원장으로서는 희망퇴직의 조건을 회사와 협상하면서 남아서 근무하게 되는 대다수의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더욱 집중하였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과 더불어 복지 처우의 개선을 회사에 요구하였고 회사는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을 서둘러 진행할 것과 최선을 다해 성실히 협상에 임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직업을 통해 급여를 받고 그 급여로 생활하는 급여 생활자이기에 내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나의 임금과 처우는 가장 중요한 가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원들의 그 뜻을 알기에 노동조합은 그 가치에 부족함이 없고자 항상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매번 임금 협상과 동시에 진행되었던 희망퇴직을 금번에는 갑작스럽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지만 희망퇴직을 통해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준비하게 될 조합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남은 직원들에게는 그에 대한 충분한 처우 개선을 통해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의 존재 가치에 한없는 기여를 하시는 조합원들을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고용안정은 지금까지 우리 조합원의 피와 땀으로 범벅된 숭고한 희생과 의지로 지켜온 것임을 알기에 노동조합은 보다 나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합원의 편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행을 통해 동감하고 행동을 통해 감동주는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